Research Center

2017년 10월 16일

투자전략 Daily

- Chart of the Week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와 3분기 실적
- 중화권 증시 동향
  중화권 증시 연중 최고치 경신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은행, NAVER, SK하이닉스, 영원무역, CJ제일제당,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투 자 전 략 | 박소연
시 황 분 석 | 김대준
계 량 분 석 | 안 혁
스몰캡전략 | 정훈석
해 외 주 식 | 백찬규
중 국 시 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 제 분 석 | 박정우
채 권 분 석 | 오창섭
크 레 딧 | 김기명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94.47	2,433.81	2,458.16	2,474.76	2,473.62
	등락폭		21.33	39.34	24.35	16.6	−1.14
	등락종목	상승(상한)	610(1)	364(0)	513(0)	452(0)	272(0)
		하락(하한)	187(0)	450(0)	281(0)	330(0)	519(0)
	ADR		73.39	78.17	83.85	87.98	81.95
	이격도	10 일	100.03	101.61	102.45	102.87	102.54
		20 일	100.92	102.36	103.10	103.46	103.13
	투자심리		30	3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182	222	202	256	234
	거래대금	(십억 원)	4,539	7,508	6,086	6,282	6,789
코스닥	코스닥지수		652.82	654.59	662.31	666.54	663.08
	등락폭		4.73	1.77	7.72	4.23	−3.46
	등락종목	상승(상한)	833(0)	416(0)	828(2)	559(2)	269(1)
		하락(하한)	325(0)	737(0)	305(0)	583(0)	896(0)
	ADR		72.62	76.05	82.22	81.86	74.97
	이격도	10 일	99.47	100.06	101.43	102.10	101.54
		20 일	99.36	99.60	100.67	101.21	100.65
	투자심리		40	40	50	60	60
	거래량	(백만 주)	686	554	558	561	611
	거래대금	(십억 원)	3,121	2,832	2,980	3,449	4,880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331.2	1,913.6	1,449.7	517.8	155.3	143.3	140.9	16.1	476.3	101.2
	매도	3,444.7	1,949.4	1,340.3	319.3	183.4	246.9	170.4	12.0	408.4	61.3
	순매수	−113.5	−35.8	109.4	198.5	−28.1	−103.6	−29.5	4.1	67.9	39.9
	10 월 누계	−424.9	1,726.5	−1,207.6	−450.5	−70.7	−210.6	4.9	−21.3	−459.4	−94.0
	17 년 누계	−5,934.4	6,925.1	−4,614.9	5,974.1	−1,652.8	−3,193.1	−115.0	−731.6	−4,896.7	3,624.2
코스닥	매수	4,247.3	408.3	216.5	61.1	21.2	31.7	25.4	2.7	74.4	23.3
	매도	4,075.9	385.8	401.8	109.8	33.6	74.7	60.1	1.5	122.1	31.9
	순매수	171.4	22.5	−185.3	−48.7	−12.4	−43.1	−34.7	1.2	−47.7	−8.6
	10 월 누계	219.1	81.9	−280.7	−43.7	−16.3	−74.9	−36.9	3.1	−112.0	−20.2
	17 년 누계	2,931.8	2,076.6	−3,724.7	−961.2	−336.0	−812.1	−513.4	−118.5	−983.4	−1,283.7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와 3분기 실적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69배
12MF PBR	1.10배
Yield Gap	8.4%P

- ▶ 연휴 직후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 배경은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
- ▶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위험선호 심리 강화 관찰
- ▶ 다만 최근 랠리는 일부 업종에 편중. 업종별 이익에 근거한 대처가 바람직할 것

■ 역사적 고점을 다시 쓴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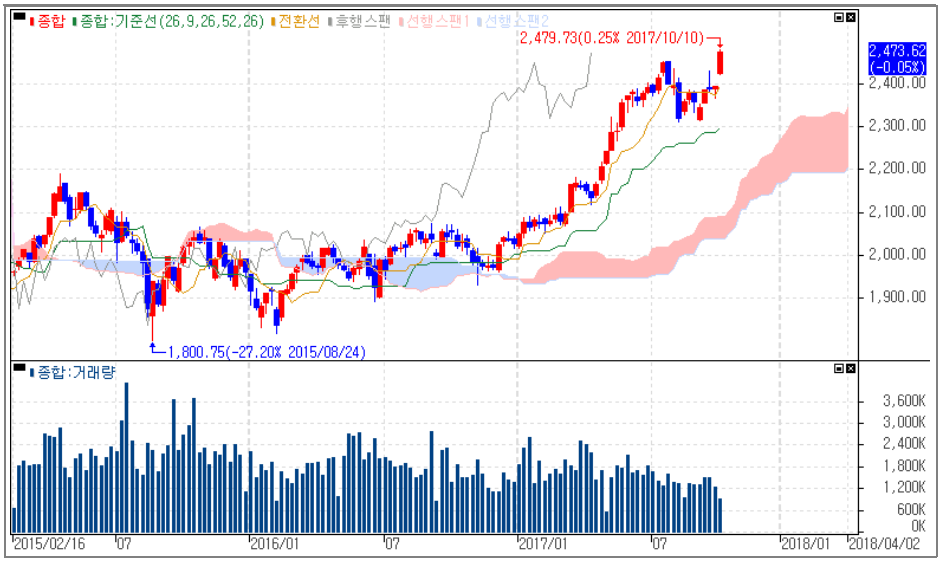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로 신고가 경신

연휴가 끝난 코스피는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전후 우려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 FTA 재협상 우려 등이 부각된 가운데서도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이번에도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은 외국인 투자자였다. 지난 3개월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약 4조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 4거래일 동안 약 1.7조원의 주식을 순매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전자, 운수장비(자동차)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속한 업종에 순매수세가 집중된 것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신고가 배경에는 견조한 글로벌 경제지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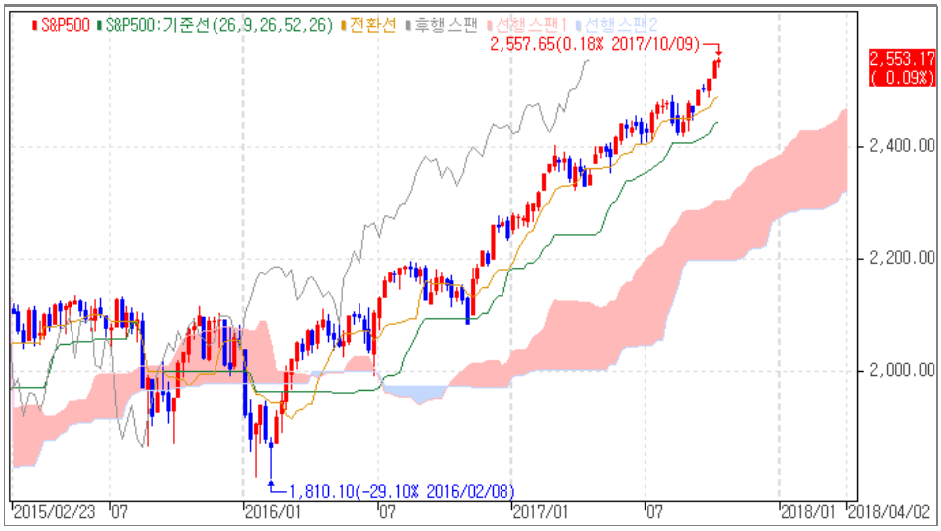
외국인이 연휴 동안 순매수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대내, 대외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 연휴 기간 동안 발표된 국내 수출 증가율과 중국 관방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미국 고용지표 역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다. IMF 역시 최근 발간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S&P 500 지수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림 1] 코스피 캔들 차트와 거래량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S&P 500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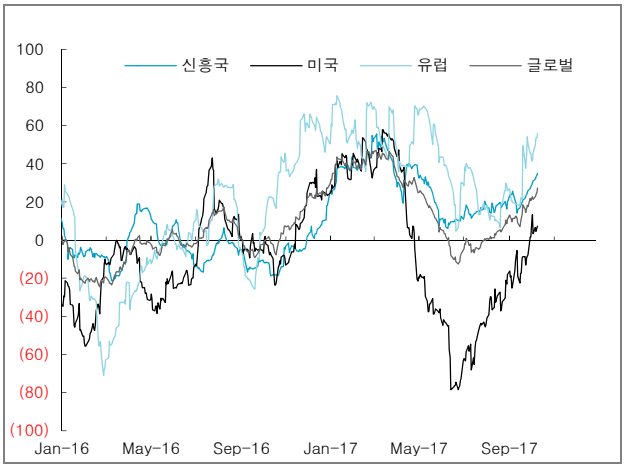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지난 1일 있었던 카탈루냐 독립 운동이나 북한 관련 잡음에도 위험 선호 심리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북핵 관련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국 CDS 5년물 스프레드는 연휴 직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변동성지수인 VIX나 VKOSPI 모두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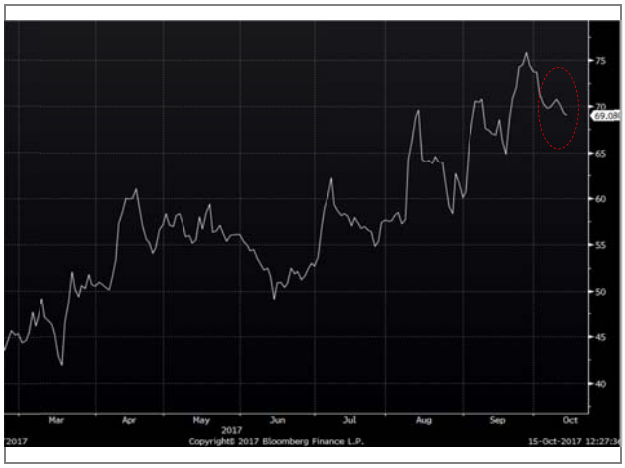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군에도 자금 유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주 글로벌이머징 주식형 펀드군의 경우 이전 주 대비 약 7배 이상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고, 이머징 채권형 펀드군 역시 표시 통화와 상관없이 강한 자금 유입세를 보였다.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군 역시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그림 3]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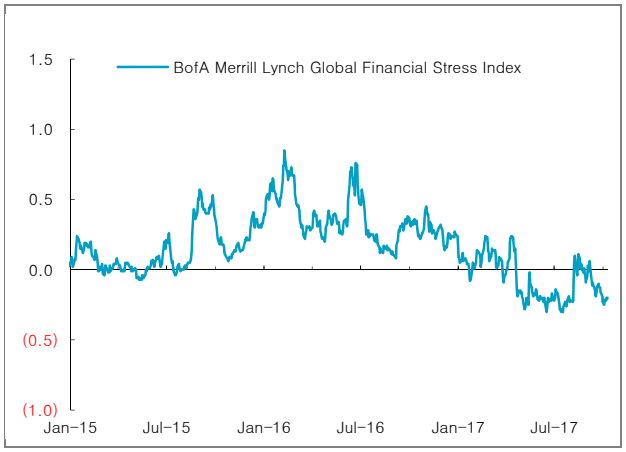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한국 CDS 5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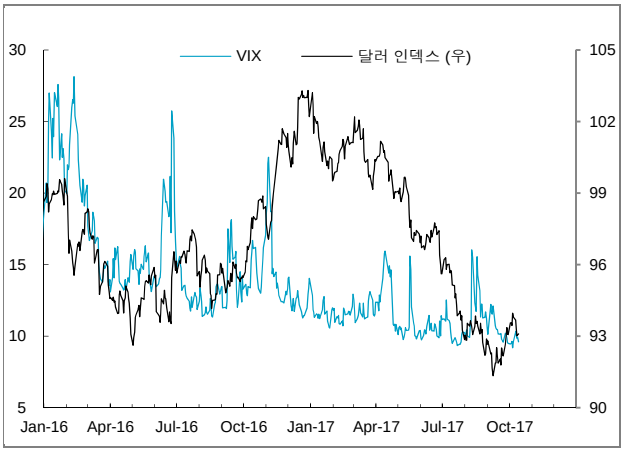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BOA메릴린치 글로벌 금융 스트레스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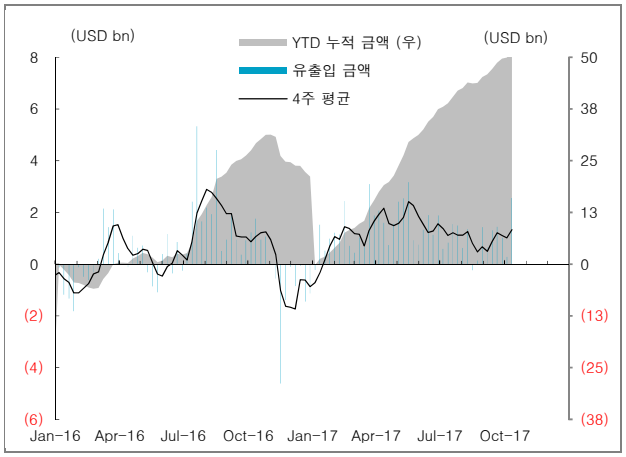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VIX와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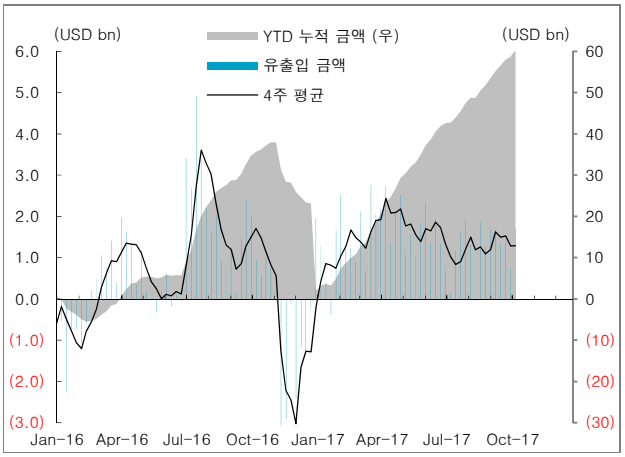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글로벌이머징 주식형 펀드 유출입



자료 :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신흥국 채권형 펀드 유출입



자료 : EPFR, 한국투자증권

다만 최근 관찰되는 랠리는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

다만 이번 코스피 랠리는 상반기처럼 상승세가 IT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대비 코스피는 3.2% 상승했는데, 두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수익률은 2.5%로 낮아졌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모바일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주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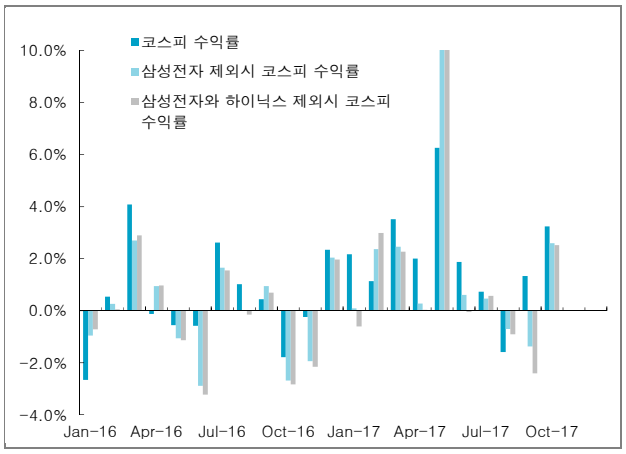
코스피 랠리의 관건은 결국 반도체 외 기타 업종의 상승 여부가 될 것

반도체에 집중한 지수 랠리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냉각될 경우 지수 랠리에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랠리의 강도나 지속 기간 등은 반도체의 강세가 타 업종으로도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업종별 차별화 된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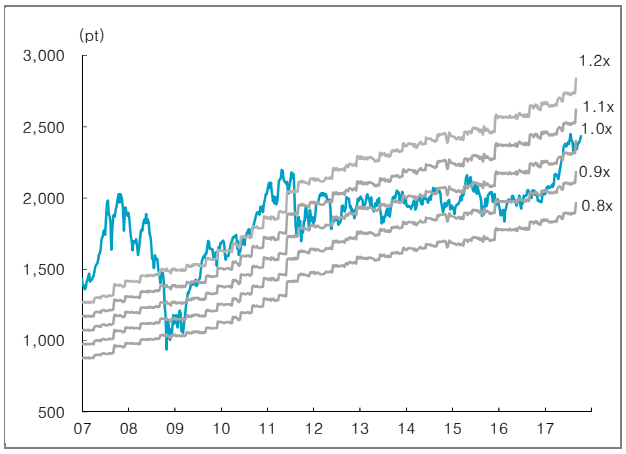
한편 코스피는 최근 들어 12개월 선행 기준 장부가치를 상회하면서 더 이상 가격 면에서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맹목적인 상승세를 추종하는 것보다는, 업종마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적 시즌이 도래한만큼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업종에는 IT가전, 반도체 등 IT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기계, 에너지,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에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그림 9]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시 코스피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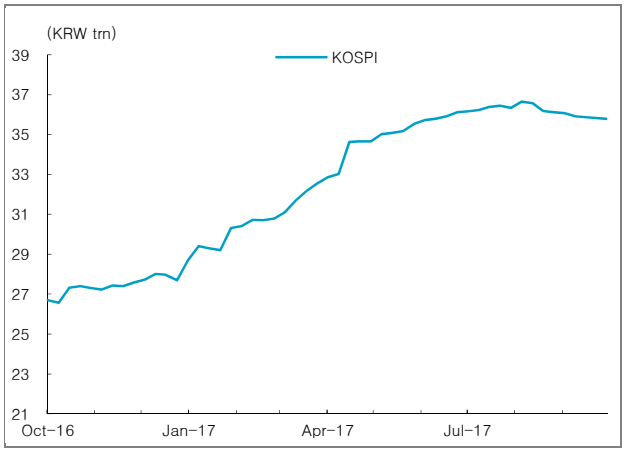
자료 :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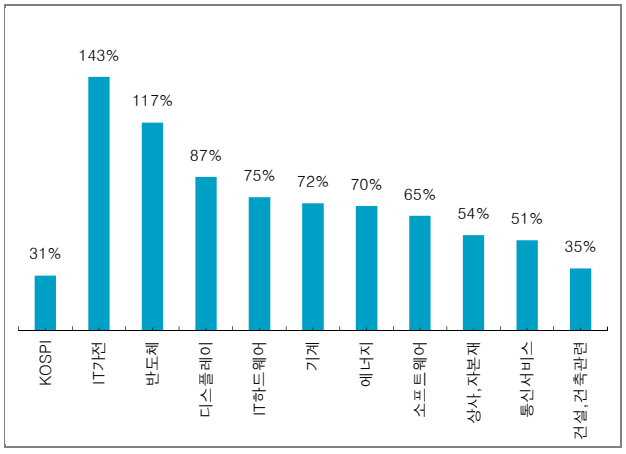
자료 :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코스피 상장 기업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자료 :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전년비 상향 조정 상위 업종



자료 :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전주 대비 3.3% 상승한 2,473.62pt로 마감했다. 연휴 중 북한의 추가 도발 부재에 대북 리스크가 완화됐다. 수출 호조도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했다. 실적시즌을 앞두고 IT업종을 비롯해 이익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6.3원 하락한 1,129.1원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bp 오른 1.90%를 기록했다.

거래소 업종 기준으로 의약품(+9.1%), 증권(+7.1%), 보험(+5.4%) 등의 업종이 상승했고, 섬유의복(-2.1%), 의료정밀(-1.9%), 운수창고(-1.4%)업종이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1%)는 제2공장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적 기대감에 삼성전자(+5.3%)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3분기 영업이익 14.5조원을 기록했다. 운송 업종의 12MF EPS가 상향 조정되었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전체 기업	3.35	4.57	21.68	1.15	1.94	9.68	1.07
에너지	3.99	6.40	36.49	1.79	3.58	8.30	1.13
소재	-0.14	-5.09	15.74	0.72	1.26	8.79	0.85
화학	-0.87	-5.20	19.56	0.76	1.90	8.52	1.11
비철금속	6.44	0.20	16.76	2.02	3.83	10.72	1.25
철강	-0.69	-6.59	12.74	0.26	-0.56	8.50	0.53
산업재	2.50	2.27	4.16	0.95	1.20	12.36	1.00
자본재	2.97	3.50	4.04	0.52	1.51	12.08	0.96
국방/항공	5.48	-0.79	-22.98	1.62	1.06	17.76	1.66
건설	1.55	1.36	-2.67	1.64	1.43	6.26	0.70
기계	1.45	-0.99	-3.82	2.47	1.60	11.50	0.92
조선	3.98	11.57	8.65	-13.17	1.18	30.66	0.72
상업서비스	2.42	-0.94	0.68	0.51	-0.97	17.90	2.16
운송	-1.21	-6.13	6.21	5.06	-0.67	13.97	1.20
경기소비재	1.06	3.31	-2.89	1.22	0.02	10.65	0.91
자동차/부품	1.49	8.19	-3.86	1.61	0.38	7.23	0.60
내구소비재/의류	0.94	0.48	-6.13	0.46	-0.55	18.72	2.64
화장품	0.73	3.02	-5.30	0.14	-1.13	23.74	3.43
호텔/레저	-1.18	-3.64	2.45	2.15	-0.14	18.83	2.04
미디어	1.72	-0.52	-0.54	-0.67	-0.84	16.97	1.68
유통	0.62	-1.05	5.49	0.63	-0.91	13.21	0.73
필수소비재	-0.64	-2.83	0.10	1.68	1.25	12.83	1.27
음식료/담배	-0.60	-2.65	0.69	1.69	1.25	12.84	1.29
의료	4.48	8.26	20.65	2.27	2.13	39.47	4.14
제약/바이오	4.88	9.43	24.97	2.70	2.34	43.04	4.27
금융	3.64	5.95	24.98	0.28	0.41	8.75	0.70
은행	2.56	6.29	29.02	0.17	0.20	7.30	0.59
증권	7.04	4.35	34.91	0.33	0.33	10.64	0.88
보험	4.80	6.16	15.98	0.55	0.72	10.80	0.84
IT	5.38	7.89	44.78	1.47	3.78	8.51	1.52
소프트웨어	1.78	3.36	16.55	2.41	2.12	21.27	2.76
하드웨어	2.19	-4.74	25.26	3.42	4.12	13.80	1.65
반도체	6.63	11.10	55.52	1.65	4.42	7.40	1.46
디스플레이	-1.82	-7.12	-4.62	-7.26	-7.91	7.93	0.93
통신서비스	2.14	3.01	11.28	0.98	0.46	8.85	0.94
유틸리티	-1.80	-6.38	-13.87	0.90	-3.18	6.25	0.36

주: 표에 제시된 업종별 수익률은 10월 13일 종가 기준, 추정치는 그 직전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국내 펀드 시장 동향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며 대부분의 펀드군은 순유입세로 전환했다. 배당주식형 펀드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됐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인덱스 펀드형도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고배당 펀드와 대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표〉 유형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설정액(억원)				설정액 증감(억원)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2017-07-20	163,080	31,430	75,337	44,913	-1,087	-506	925	0
2017-07-27	161,463	32,033	76,066	45,492	-1,617	603	730	579
2017-08-03	160,649	32,733	77,805	46,488	-814	699	1,739	995
2017-08-09	159,898	33,022	78,561	46,646	-751	289	756	158
2017-08-17	159,103	33,177	79,285	47,795	-795	155	725	1,149
2017-08-24	156,483	33,348	78,913	48,217	-2,619	171	-372	422
2017-08-31	158,689	33,525	80,075	48,442	2,206	177	1,162	225
2017-09-07	158,192	33,661	80,757	48,796	-498	136	682	354
2017-09-14	157,412	33,651	82,337	49,069	-780	-10	1,580	274
2017-09-21	156,011	33,519	82,524	49,927	-1,401	-132	187	858
2017-09-28	155,318	32,856	81,678	50,243	-693	-663	-846	316
2017-10-12	154,779	32,925	83,865	51,050	-539	69	2,187	807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표〉 주요 설정액 증감 펀드

(단위: 억원)

	회사명	펀드명	투자지역	증감액	설정원본
설정액 증가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536	63,008
	베어링자산운용	베어링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489	3,362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449	24,602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09	2,204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삼성그룹밸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95	696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20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17	2,109
	한화자산운용	한화ARIRANG고배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37	23,783
	신영자산운용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국내	129	711
설정액 감소	케이비자산운용	KBSTA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44	9,897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KIN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43	8,001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201	2,404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모)	해외	-196	5,521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I	국내	-157	136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롱텀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91	651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신한BNPP중국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12	317
	케이비자산운용	KB통중국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3클래스	국내	-4	3,407

주: 2017년 10월 11일 기준, 설정원본 1천억원 이상 공모 주식형 펀드 대상, 같은 펀드 내 자금 유출입 규모가 가장 큰 클래스만 포함
다만 설정일이 2015년 이후일 경우 설정원본이 1천억원 이하라도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요 증시 일정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中> 9월 CPI YoY (n/a, 1.6%, 1.8%) 9월 PPI YoY (n/a, 6.5%, 6.3%)	美> 9월 광공업생산 (n/a, 0.0%,-0.9%) 유럽> 9월 CPI YoY (n/a, n/a, 1.5%) 10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1.7)	韓> 9월 실업률 SA (n/a, n/a, 3.8%) 美> **베이지북 공개**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90, 1180) 中> 19차 당대회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9월 선행지수 (n/a, 0.1%, 0.4%) 中> 3Q GDP YoY (n/a, 6.8%, 6.9%)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1%)	美> 연준 옐런 연설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32, 5.35) 유럽> EU 정상회담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유럽> 10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2)	美> 10월 마킷 제조업 PMI (n/a, n/a, 53.1) 유럽> 10월 마킷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8.1)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내구재 주문 (n/a, 0.3%, 2.0%) 9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50, 560)	韓> 3Q GDP YoY (n/a, n/a, 2.7%)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9월 도매재고 MoM (n/a, n/a, 0.9%)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4%) 9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5.0%)	美> 3Q GDP 연간화 QoQ (n/a, 2.0%, 3.1%)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9월 CPI YoY (n/a, n/a, 0.7%)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최설화(emily.cui@truefriend.com)

중화권 증시 연중 최고치 경신

▶ 상해종합지수는 0.1% 상승, 인민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호재로 작용
▶ 홍콩H지수는 0.2% 상승, 본토를 비롯한 해외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것이 호재로 작용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1% 상승, 석탄, 시멘트, 환경보호, 하드웨어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1% 상승한 3,391p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간단위로는 1.2% 상승하며 5주만에 강세 전환했다. 거래대금은 1,811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10% 감소했다. 장중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인 주식시장은 마감직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인민은행이 금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4,98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아이폰X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애플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또한 직전일 동절기 철광석의 생산제한을 앞 당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철강, 석탄, 시멘트 등의 시크리컬 업종이 상승했다. 다만 보험, 은행 등의 금융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제한됐다. 휴대폰 부품주의 강세 속에 차스닥지수도 1.4% 상승한 1,926p로 마감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직전일에 이어 후구퉁을 통해 상해주식을 7.1억위안 순매도 한 반면 심천주식은 선구퉁을 통해 9.8억위안 순매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2% 상승, 산업재, 통신, 유틸리티 등의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0.2% 상승한 11,520p 로 마감하며 직전일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주간 단위로는 0.5% 상승하며 2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였다. 본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과 본토를 비롯한 해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 통신, 유틸리티 등이 상승한 반면 직전일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는 소폭 조정을 받았다. 한편 항셍지수는 산업재와 에너지 업종의 강세 속에 강보합세로 마감했고, A/H 프리미엄지수는 전일 대비 0.6% 하락한 127.1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10/13 (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390.52	0.13	1.24	0.19	9.24
심천종합	2,036.81	0.66	2.43	2.10	3.44
차스닥	1,926.07	1.37	3.17	1.99	-1.83
홍콩H	11,519.81	0.17	0.53	2.97	22.62
Shibor 7일물 금리(%, %p)	2.85	-1.19	-3.89	1.64	12.14
Shibor 1개월 금리(%, %p)	4.05	-0.05	-0.50	3.01	22.48
중국국채 3년물(%, %p)	3.67	-0.04	1.57	1.25	21.15
위안/달러 고시환율	6.5866	0.09	-0.76	0.74	-5.05
역내 위안/달러	6.5869	0.01	1.00	-0.69	5.44
역외 위안/달러	6.5795	-0.02	1.08	-0.48	6.03

주: 13일 오후 5시 39분 기준

신은영(eunyoung@truefriend.com)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

-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일제히 하락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 동반 매도세에 기관 매수세가 맞서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6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하며 약보합세로 마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로 장중 660P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하락폭을 줄여 663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국 굴삭기 시장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에 두산인프라코어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위탁 판매 본격화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씨트리가 장중 15% 가까운 초강세를 보였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소폭 오름세로 마감.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투자 발표 소식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에이테크솔루션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북미, 유럽 지역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사전예약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넷마블게임즈가 급등세를 보임. 또한, 코스피 이전 상장과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 한국과 중국의 통화 스와프 연장 소식에 양국간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며 면세점, 화장품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임. 반면, 삼성전자가 3분기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로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두산인프라코어(042670) ▶9,200 (+6.73%)	**굴삭기 판매 확대 기대감에 급등세** – 중국 굴삭기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향 굴삭기 매출이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아울러, 자회사인 두산밥캣의 지분매각과 실적 개선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씨트리(047920) ▶6,720 (+1.05%)	**위탁판매 본격화 소식에 상승** – 영업 전문성 강화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도매업체 중 매출 기준 1~2위 업체인 지오영, 백제약품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중 초강세를 보였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소폭 상승 – 최근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오리지널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엑셀론이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며 동사의 치매 치매치료제 엑셀씨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셀트리온 3인방	**셀트리온 3사 동반 신고가 경신** –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1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과 셀트리온제약의 제네릭 미 FDA 승인 기대감에 3사가 일제히 신고가 경신 – 셀트리온(068270, +9.09%), 셀트리온제약(068760, +8.1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0.97%) 일제히 신고가 경신
중국 소비 관련주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소식에 강세** – 560억달라 규모의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소식과 신임 주중한국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면세점, 화장품 등 중국 소비 관련주 강세 – 호텔신라(008770, +6.38%), 신세계(004170, +5.59%), 한국화장품(123690, +8.24%), 코스맥스(192820, +7.32%), 아모레퍼시픽(090430, 6.48%), 아모레G(002790, +6.4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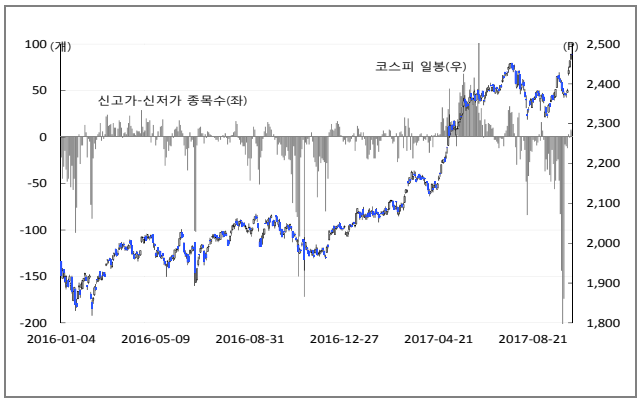
- 미국증시는 본격적인 어닝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3대 지수가 주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임

- 국내증시도 글로벌 증시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가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 속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주 후반 상승 랠리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 그러나 코스피가 2,470P선에 안착하고, 코스닥은 660P선을 회복하며 한주를 마감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유가증권	IT	인터넷	카카오	152,500	6.1	산업재	서비스업	AJ렌터카	13,550	3.9
	금융	보험	메리츠화재	25,700	4.2	건강관리	의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388,500	14.5
	금융	증권	신영증권	60,700	6.4	건강관리	의약품	대웅제약	126,500	18.5
	소재	화학	율촌화학	14,800	5.7	건강관리	의약품	녹십자	207,000	3.4
	소재	철강금속	고려아연	532,000	7.2	건강관리	서비스업	녹십자홀딩스	39,350	3.0
	에너지	화학	S-Oil	132,000	3.5	건강관리	의약품	한미약품	486,000	7.0
	에너지	서비스업	SK이노베이션	209,500	5.2	경기소비재	유통업	와이비로드	3,205	30.1
	산업재	서비스업	SK	307,000	6.5	경기소비재	화학	LG생활건강	1,019,000	8.7
코스닥	IT	IT부품	인터플렉스	61,100	11.2	건강관리	제약	셀트리온	169,300	18.2
	IT	반도체	서울반도체	27,200	8.3	건강관리	의약품	셀트리온헬스케어	62,500	13.3
	금융	사업지원	나이스디앤비	7,120	13.6	건강관리	제약	애니젠	18,350	0.5
	산업재	소프트웨어	지트리비앤티	34,000	19.5	경기소비재	소매	아이에스이커머스	5,640	15.9
	건강관리	제약	셀트리온제약	34,050	66.0					

주) 상기 종목들은 10월 13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정훈석(hunseog@truefriend.com)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솔케미칼 (014680)	72,200 (+0.6)	71,800 (9/28)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포스코강판 (058430)	30,300 (+2.4)	29,600 (9/28)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신성델타테크 (065350)	3,950 (−7.2)	4,255 (8/24)	– 전방업체인 LG전자의 건조기 판매 급증과 더불어 세탁기, 청소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HA사업부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 전기차 시장 확대로 베터리 부품 및 ESS부품 매출의 구조적 증가 예상 –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종료되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전망
아이콘트롤스 (039570)	25,700 (−4.8)	27,000 (8/24)	– 아파트 입주량 증가에 따른 스마트홈 사업부 매출 증가 기대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사업부의 사업성 부각 전망 – 안정적인 캡티브마켓, 계열사 지분가치, 스마트홈 및 지능형 빌딩 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 –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이엘피 (063760)	23,750 (−13.5)	27,450 (8/8)	– 마진율이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향상 전망 – 본사 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여 재무건전성 우수 – 2017년 예상 PER 7.6배로 디스플레이 장비주 평균 PER 10.2배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코웰패션 (033290)	5,480 (+31.6)	4,165 (8/2)	–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추가 라이선스 브랜드 확대 가능 – 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기존 언더웨어 및 스포츠웨어 사업부도 견조한 성장 전망 – ’17년 예상 PER 9.2배로 해외진출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 구간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정훈석(hunseog@truefriend.com)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엠텍 (091120)	14,850 (+5.3)	14,100 (7/20)	256	21	15	1,060	14.0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KG ETS (151860)	4,085 (−3.2)	4,220 (7/5)	125	20	15	428	9.5
			–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307,000 (+9.6)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8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풍산 (103140)	54,800 (+34.3)	40,800 (5/23)	2,970	279	190	6,766	8.1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 –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벨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지바이오 (035810)	6,000 (−9.0)	6,590 (5/17)	1,438	99	41	754	8.0
			–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 –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				
오텍 (067170)	9,060 (−20.2)	11,350 (4/6)	828	37	17	1,288	7.0
			–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백두산(doosan@truefriend.com)

은행: 3Q17 Preview - 무난한 호실적

■ 하락했던 주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

은행 지수인 KRX은행은 3분기 1.1% 하락 마감했다. KRX은행 작년 말 종가를 100p로 환산한 절대주가는 6월 말 129p였다.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KRX은행은 8월 1일에 정점인 139p까지 상승했다. 이후 8월 동안에는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규제 이슈로 131p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게다가 9월 4~6일에 걸쳐 키움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및 은행 연체 가산금리 하향이 규제 리스크로 반영돼 주가는 120p까지 급락했다. 이후 각종 규제 도입의 악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으로 저가매수가 유입됐다. 차익실현에도 불구하고 9월 말부터는 미국 금리인상 기대에 따라 국내 채권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1p까지 회복했다.

■ 금리상승과 규제 우려 완화로 은행 비중확대 유지

은행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NIM 개선과 규제 리스크 우려 완화가 주가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금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건전성과 비이자이익 등 다른 부문들이 경기 회복과 자본시장 호조에 힘입어 양호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선별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고, 규제로 인한 수익 감소가 개별 규제마다 건전성이나 마진 개선으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 악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종 탑픽은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기초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로 유지한다.

■ NIM 개선은 3분기에는 쉬고 4분기부터 재개

3분기 NIM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우선 2분기부터 단기물 금리가 하락 후 횡보하면서 리프라이싱 부담이 있었다. 상반기까지 대출 초과수요로 상승했던 대출 가산금리와 저원가성수신 비중도 3분기에는 개선이 둔화됐다. 다만 수익성 위주 대출 포트폴리오 변경이 타행 대비 크거나 가격 경쟁력 있는 시중은행들의 3분기 NIM은 전분기대비 1~4bp 개선될 전망이다.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 시장금리는 4분기부터 NIM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 3분기 은행 대출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7%

3분기 은행 대출은 전분기대비 1.7%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를 전망이다. 우선 한국은행 기준으로 8월까지 대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6월 대비 7~8월 누적 은행 업종 대출은 정책모기지와 카카오뱅크 효과를 조정하면 1.4% 증가했다. 부문별 증가율은 대기업 1.0%, 중소기업 1.4%,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제외) 1.1%, 가계 기타대출(카카오뱅크 제외) 2.2%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5대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9월에도 7~8월 수준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9월에 기업 및 개인신용대출 증가세가 7~8월 대비 일부 둔화됐음을 가정해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힘입어 8월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김성은(askim@truefriend.com)

NAVER(035420)

매수(유지)
목표가: 930,000원(유지)
종가(10/12): 768,000원

3Q17 Preview: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 양호한 매출 성장 vs 공격적인 투자

NAVER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 1,633억원(+13.7% YoY, +3.0% QoQ)과 2,843억원(+0.7% YoY, -0.3% QoQ)으로 추정한다. 광고 매출액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단가 상승 효과 일부 반영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12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비즈니스플랫폼과 IT 플랫폼 매출액은 NAVER 페이 거래액 증가와 쇼핑 관련 사업 호조로 각각 5,392억원(+16.6% YoY, +3.6% QoQ)과 530억원(+10.0% YoY, +7.3% QoQ)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업비용은 8,790억원(+20.3% YoY, +6.7% QoQ)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마케팅 비용은 이미지 검색 TV광고 집행, NAVER 페이 적립금 증가, WAVE 프로모션으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6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또한 신규 인력 충원으로 1,492억원(+3.8% QoQ)으로 늘어날 것이다.

■ 검색 채널 확대를 통한 검색 시장 내 영향력 강화

검색 채널의 확대로 국내 검색 시장 내 영향력이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지 검색 기능과 AI 스피커 'WAVE'의 출시로 이용자들은 텍스트 입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NAVER 검색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Query의 증가가 예상되며 광고 효율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월등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보유한 점도 경쟁 우위 확보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NAVER의 커머스 사업과 AI 기반 신규 검색 상품들의 연동을 통한 매출 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제품 검색의 경로가 다양해 짐에 따라 온라인 쇼핑 시장 내 점유율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 매수 의견 및 목표주가 930,000원 유지, 제한적인 하락 Risk

NAVER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930,000원을 유지한다. 비용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광고와 비즈니스플랫폼의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1월 출시된 쇼핑 검색 광고의 광고주 수와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인터넷 산업 규제와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단기 상승 여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 투자에 대한 결과물들과 기존 사업간의 시너지, 콘텐츠 역량 강화, 신규 광고 상품 출시 등 긍정적인 부분들을 감안할 시 국내 포털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LINE 또한 광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게임 부문 역량 강화가 예상되어 NAVER 기업 가치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3,254	830	519	17,619	15.3	986	37.3	19.7	6.8	26.5	0.2
2016A	4,023	1,102	749	25,746	46.1	1,265	30.1	17.2	5.2	26.2	0.1
2017F	4,609	1,153	769	26,434	2.7	1,326	29.1	16.2	4.5	19.4	0.2
2018F	5,225	1,251	875	29,797	12.7	1,429	25.8	14.5	3.9	18.5	0.2
2019F	5,842	1,398	991	33,726	13.2	1,583	22.8	12.6	3.4	17.6	0.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유종우(jongwoo.yoo@truefriend.com)

SK하이닉스(000660)

중립(유지)
종가(10/12): 88,500원

3Q17 Preview: 서버디램 수요강세 vs. 디램 수요증가율 둔화

■ 3분기 영업이익 3.9조원, 4분기 4.1조원 예상

서버디램 수요강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디램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application 중 가격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모바일디램의 상승폭이 커 SK하이닉스의 3분기 디램 전체 가격상승률은 6%로 추정된다. 디램가격 강세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4조원, 3.9조원으로 전분기대비 25%,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4분기에도 디램가격 상승 지속으로 영업이익은 4.1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디램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모바일디램을 포함한 다른 application의 수요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2018년 메모리업황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 WSTS기준 8월 전세계 디램출하량 증가율 16%로 지난 5월 이후 20% 하회 지속

WSTS가 발표한 8월 전세계 디램출하량이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디램수급이 강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13.1% 기록한 후 6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공급증가율인 19%를 하회하고 있다. 최근 3개월 출하량 증가율 평균도 16.8%로 공급증가율을 하회한다. 상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서버디램 수요 강세와 모바일 및 PC디램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주요 application의 디램채용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업체들의 공정전환 어려움으로 공급증가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가격강세는 전반적인 디램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 2018년 낸드 공급증가율 40% 상회해 공급과잉 가능성 높아져

2018년 낸드 공급증가율이 41%로 수요증가율 29%를 상회하면서 공급과잉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실적발표에서 마이크론은 2018년 낸드산업의 bit growth를 50%, 마이크론 자체의 bit growth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둘 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8년 낸드산업의 공급증가율은 41%로 예상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증가율을 각각 38%, 34%로 모두 2017년의 공급증가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2018년 수요증가율은 모바일 및 PC용 SSD의 낸드채용량 증가율 둔화로 29%에 머무를 전망이어서 공급증가율을 하회할 전망이다. 낸드공급 증가로 2018년 낸드가격과 수익성의 하락이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8,798	5,336	4,322	6,002	2.7	9,289	5.1	2.2	1.0	21.9	1.6
2016A	17,198	3,277	2,954	4,184	(30.3)	7,733	10.7	4.1	1.3	13.0	1.3
2017F	30,250	13,605	10,902	15,443	269.1	19,153	5.7	3.1	1.8	37.4	1.1
2018F	32,907	12,737	10,135	14,355	(7.0)	19,657	6.2	2.9	1.5	26.1	1.7
2019F	35,210	11,189	8,926	12,643	(11.9)	19,276	7.0	2.6	1.3	19.1	3.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나은채(ec.na@truefriend.com)

영원무역(111770)

매수(유지)
목표가: 450,000원(유지)
종가(10/12): 33,700원

3Q17 Preview: 예정된 정상화

■ OEM 부문 수익성 정상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개선 전망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한 5,840억원,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650억원(영업이익률 11.2%)을 기록,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OEM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910억원(+7% YoY)과 680억원(+31% YoY, 영업이익률 17.5%, +3.2%p YoY)으로 예상된다. Scott 매출액은 1,720억원(+5% YoY), 영업손실은 3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손실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달러 기준 OEM 매출액은 약 6% 성장이 예상된다. 미 재고 조정이 정점이었던 작년 3분기 생산성 부진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제반 비용 증가 요인이 정상화되면서 3분기 OEM 수익성은 전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OEM: 미 재고 조정 피크 지나, 강도는 확인 요인이나 수요 회복 방향성은 유효

동사의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16년 47%로 하락, 재고 조정 영향권이었다. 2015년 9월 320억 달러까지 증가했던 미 도매 재고는 금년 8월 280억 달러로 감소했다. 동사의 미주 주요 바이어 재고도 대부분 2016년부터 증가 추세가 둔화되거나 감소, 재고 조정은 피크를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미 의류 소매판매는 금년 들어 완만하게 회복, 의류 OEM 업체들의 오더도 2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또한 Bloomberg Consensus에 따르면 동사의 미주 주요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은 2016~2017년을 저점으로 2018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Scott: 인수 이후 좌충우돌. 그러나 본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Scott 실적은 2016년부터 부진하다. E-bike로의 수요 이전과 미주 재고 조정 요인으로 업황이 부진, Giant, Merida, Shimano 등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도 2016~2017년 하강 국면이다. 업황 둔화 속에 Scott의 할인 판매가 증가했고 영원무역으로 피인수 이후 추가적인 M&A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금년 할인 판매로 재고 소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피인수 3년차로 타이트한 비용 관리가 예상되어 금년 실적을 바닥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금년 매출 비중은 33%이나 영업이익과 순이익 기여도는 1% 미만이다. 또한 글로벌 자전거 업체들의 2017년 PER이 20~25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원무역의 10배 내외의 멀티플을 하향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585	197	130	2,931	1.4	249	14.4	7.7	1.6	12.1	0.5
2016A	2,002	179	110	2,489	(15.1)	237	12.3	6.1	1.1	9.1	0.8
2017F	2,111	199	139	3,170	27.4	258	10.6	6.0	1.1	10.6	0.7
2018F	2,209	223	157	3,582	13.0	285	9.4	5.1	1.0	10.9	0.7
2019F	2,341	248	174	3,963	10.6	311	8.5	4.5	0.9	10.9	0.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경주(kjlee@truefriend.com)

CJ제일제당(097950)

매수(유지)
목표가: 450,000원(유지)
종가(10/12): 365,000원

3Q17 Preview: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충분히 부합할 듯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8%, 11.0% 증가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CJ대한통운을 제외한 CJ제일제당 기존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1,861억원에서 2,024억원으로 3분기만에 8.7%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는 식품 사업으로, 우선 가공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HMR류의 고성장과 추석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6.0%, 19.8% 늘어날 것이다. 소재식품도 설탕 ASP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당 투입가격은 내려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에 인수한 브라질의 농축대두단백제조사 Selecta가 9월부터 종속법인으로 편입된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재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7.0%, 40.0%에 다다를 것이다. 바이오는 대부분의 제품가격이 약간 오름세여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329억원에서 405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동기의 398억원보다 약간 많은 수치이다. 라이신가격은 중국의 환경감찰로 인한 경쟁사의 생산 중단과 Ajinomoto의 트립토판 추가 생산 지연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영업외에서는 삼성생명 지분 매각으로 약 2,300억원의 매각차익이 계상돼 크게 호전될 것이다.

■ 4분기에도 이익 개선 이어질 전망

추석 연휴가 지난해에는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초였기 때문에 선물세트 반품의 영향은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마케팅비 제어로 판관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공식품의 이익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가공식품 매출액은 10%대 증가세를 유지, 중국 가공식품은 B2C 입점 비용 축소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Selecta 인수 효과가 분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트립토판의 가격은 Ajinomoto의 증설 물량이 출회되며 하락할 위험이 있으나, 라이신이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계절에 진입해 가격이 소폭 상승해 올라 견조한 이익을 견인할 것이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할 전망이다.

■ 바이오기업 인수 가능성 낮아진 것은 주가에 긍정적

Global peers와의 PER 비교를 통해 산출한 목표주가 450,000원을 유지하고, 동사를 이번 달 음식료 Top picks 중 한 종목으로 매수 추천한다. 동사의 주가가 과거보다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점 이외에 M&A 전략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연초부터 시장에 떠돌았던 중국 바이오기업의 고가 인수 가능성이 최근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해외 가공식품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과거 투자 사례를 볼 때 식품업체 인수 시 valuation 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삼성생명 주식 매각 이익을 제외한 올해 수정 EPS는 21,408원으로 수정 PER은 17.0배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식품과 해외 사료업의 개선으로 수정 PER은 13.2배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017년과 2018년 세계 주요 음식료업체의 평균 PER은 각각 22.9배, 21.5배로, 동사가 상대적으로 commodity성 사업의 비중이 높다고는 해도 저평가 폭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목표주가를 적용한 Implied PER은 2017년과 2018년에 21.0배와 16.3배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2,924	751	189	13,401	105.2	1,235	28.2	10.0	1.7	6.2	0.7
2016A	14,563	844	276	19,522	45.7	1,375	18.3	9.6	1.5	8.4	0.7
2017F	16,081	835	433	30,669	57.1	1,430	11.9	9.5	1.4	12.2	0.7
2018F	18,234	1,068	386	27,361	(10.8)	1,712	13.3	8.1	1.3	9.9	0.8
2019F	19,870	1,300	528	37,443	36.8	1,975	9.7	7.1	1.1	12.3	0.8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윤태호(taeho3123@truefriend.com)

삼성물산(028260)

매수(유지)
목표가: 184,000원(상향)
종가(10/12): 143,000원

3Q17 Preview: 반도체/바이오시밀러/금리랠리의 최적 대안 주

■ 거침없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행렬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S, 삼성생명이 신고가 랠리 구간이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업황, 바이오시밀러 멀티플 리레이팅, 금리 상승 사이클로 연초 대비 삼성전자는 51.2%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1.2% 상승, 삼성SDS는 31.4% 상승, 삼성생명은 11.3% 상승했다. 반면, 모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폭은 13.9%에 불과했기에 NAV 할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져 가격 부담은 상당부분 소멸되었다. 밸류에이션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물산이 전자/바이오로직스 랠리의 대안주로 충분해 보인다.

■ 바이오로직스 흑자전환, 삼성전자/삼성생명 배당수익으로 삼성물산의 이익레벨업

2017년 3분기 매출은 6조 688억원(-8.4% YoY, -12.8% QoQ), 영업이익은 2,238억원(+19.7% YoY, -16.0% QoQ), 지배주주 순이익은 1,628억원(-3.7% YoY, +34.5%, QoQ)을 전망한다. 건설사업 정상화와 전자 분기 배당이 반영된 경상적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에는 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실적정상화, 삼성전자/삼성생명의 배당수익 증가로 삼성물산의 이익 레벨업이 예상된다. 자회사 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3분기 흑자전환 후 2018년 영업이익 1,049억원, 2019년 영업이익 3,243억원을 시현해 삼성물산의 실적에 본격 기여할 전망이다. 실적 호황기에 진입한 삼성전자/삼성생명의 배당수익 증가로 2018년 삼성물산의 지배주주 순이익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4.61%, 삼성생명 19.4%, 삼성SDS 17.1%를 보유 중인데, 2018년 세전 배당수익은 4,54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삼성전자 15.4%, 삼성생명 30%, 삼성SDS 12.6% 배당성향 가정). 따라서 2018년 지배주주 순이익 8,060억원(+19.0% YoY)은 무난해 보인다. 2019년 바이로직스의 당기순이익 2,700억원을 가정하면 지분 4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연간 순이익은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행사에 따른 현금유입 미반영).

■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삼성물산의 지분가치 1.3조원 증가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 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4.6%에서 4.9%로 상승하고, 지분가치는 약 1.3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8.2%에서 8.8%로 상승하고 지분가치는 약 2.3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삼성물산 NAV의 31.7%를 차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3,345	727	2,747	413	381.7	1,008	339.0	32.6	74.6	25.2	0.4
2016A	28,103	1,912	107	13	(96.9)	2,412	9,653.8	11.6	59.4	0.6	0.4
2017F	26,175	840	675	4,063	31,152.9	1,187	35.2	27.5	61.0	3.5	0.4
2018F	26,341	870	806	4,850	19.4	1,220	29.5	26.9	54.7	3.7	0.4
2019F	27,178	1,081	986	5,926	22.2	1,436	24.1	23.0	1.0	4.0	0.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진홍국(hg.jin@truefriend.com)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매수(유지)
목표가: 440,000원(상향)
종가(10/12): 377,500원

바이오시밀러는 생산공장도 중요하다!

■ 바이오시밀러의 생산공장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바이오시밀러 판매승인에 있어 품질뿐 아니라 생산공장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10월 11일 인도 Biocon과 미국 Mylan이 공동으로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의 바이오시밀러 MYL-1401H는 생산공장 문제로 FDA로부터 판매허가를 보류하는 CRL(Complete Response Letter)을 통보 받았다. 이 두 업체는 이미 동일한 이유로 유럽에서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승인을 거절당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월 12일 2공장의 생산제품에 대해 FDA로부터 제조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그 동안 시제품 수탁생산만으로 가동률을 올려왔던 2공장의 내년 가동률 전망치(60%)의 달성 가시성도 높아졌다. 앞으로는 고객사들로부터 시제품 뿐 아닌 미국에 실제 판매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생산주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3공장 가동률도 문제없다

이번 Mylan과 Biocon의 생산공장 이슈와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의 FDA승인이 맞물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비에 대한 고객사들의 인식과 수요가 한층 증대될 것이다. 1공장(연간 생산능력 3만 리터)은 승인을 얻는데 25개월이 걸린 반면 2공장(연간 생산능력 15만 리터)은 생산캐파가 1공장보다 더 큼에도 6개월을 단축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선설비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 2019년 말 가동 예정인 3공장의 신규고객 유치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3공장의 풀가동 달성시기도 기존 우리의 전망치 2023년보다 1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 3공장 가동률 전망치 올리며 목표주가 44만원으로 10% 상향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44만원으로 10% 상향한다. 목표주가 상향의 주요 근거는 3공장의 가동률 전망치 상향에 따른 FCF(잉여현금흐름) 개선에 기인한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에 대해 신규 고객사 유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생산공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생산을 수탁하는 고객사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마지막 영업적자를 뒤로 하고 3분기부터는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바이오에피스는 세계시장에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전망이다. CMO 세계 1위 등극이 예정돼 있고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개발업체로 변모해 나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긴 호흡에서 매수를 권고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91	(204)	1,905	19,414	NM	(162)	NM	NM	NM	68.7	-
2016A	295	(30)	(177)	(1,558)	NM	30	NM	320.6	4.9	(5.2)	-
2017F	421	9	(126)	(1,904)	NM	71	NM	351.1	7.0	(3.3)	-
2018F	578	105	528	1,423	NM	184	265.3	134.2	6.3	14.0	-
2019F	956	334	292	4,407	209.7	439	85.7	55.6	5.8	7.0	-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성근(skkim@truefriend.com)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94.47	2,433.81	2,458.16	2,474.76	2,473.62
	등락폭		21.33	39.34	24.35	16.6	−1.14
	등락종목	상승(상한)	610(1)	364(0)	513(0)	452(0)	272(0)
		하락(하한)	187(0)	450(0)	281(0)	330(0)	519(0)
	ADR		73.39	78.17	83.85	87.98	81.95
	이격도	10 일	100.03	101.61	102.45	102.87	102.54
		20 일	100.92	102.36	103.10	103.46	103.13
	투자심리		30	3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182	222	202	256	234
	거래대금	(십억 원)	4,539	7,508	6,086	6,282	6,789
코스닥	코스닥지수		652.82	654.59	662.31	666.54	663.08
	등락폭		4.73	1.77	7.72	4.23	−3.46
	등락종목	상승(상한)	833(0)	416(0)	828(2)	559(2)	269(1)
		하락(하한)	325(0)	737(0)	305(0)	583(0)	896(0)
	ADR		72.62	76.05	82.22	81.86	74.97
	이격도	10 일	99.47	100.06	101.43	102.10	101.54
		20 일	99.36	99.60	100.67	101.21	100.65
	투자심리		40	40	50	60	60
	거래량	(백만주)	686	554	558	561	611
	거래대금	(십억원)	3,121	2,832	2,980	3,449	4,880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331.2	1,913.6	1,449.7	517.8	155.3	143.3	140.9	16.1	476.3	101.2
	매도	3,444.7	1,949.4	1,340.3	319.3	183.4	246.9	170.4	12.0	408.4	61.3
	순매수	**−113.5**	**−35.8**	**109.4**	**198.5**	**−28.1**	**−103.6**	**−29.5**	**4.1**	**67.9**	**39.9**
	10 월 누계	**−424.9**	**1,726.5**	**−1,207.6**	**−450.5**	**−70.7**	**−210.6**	**4.9**	**−21.3**	**−459.4**	**−94.0**
	17 년 누계	−5,934.4	6,925.1	−4,614.9	5,974.1	−1,652.8	−3,193.1	−115.0	−731.6	−4,896.7	3,624.2
코스닥	매수	4,247.3	408.3	216.5	61.1	21.2	31.7	25.4	2.7	74.4	23.3
	매도	4,075.9	385.8	401.8	109.8	33.6	74.7	60.1	1.5	122.1	31.9
	순매수	**171.4**	**22.5**	**−185.3**	**−48.7**	**−12.4**	**−43.1**	**−34.7**	**1.2**	**−47.7**	**−8.6**
	10 월 누계	**219.1**	**81.9**	**−280.7**	**−43.7**	**−16.3**	**−74.9**	**−36.9**	**3.1**	**−112.0**	**−20.2**
	17 년 누계	2,931.8	2,076.6	−3,724.7	−961.2	−336.0	−812.1	−513.4	−118.5	−983.4	−1,283.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유통업	14,468	전기전자	-63,728
통신업	2,665	미분류	-56,505
전기가스	2,042	서비스업	-23,570
삼성물산	13,043	삼성전자	-37,057
아모레퍼시픽	4,612	SK하이닉스	-17,061
대웅제약	3,773	KODEX 레버리지	-16,928
코스맥스	3,174	TIGER 차이나HSCEI	-13,565
대한유화	3,020	KBSTAR 200	-8,535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유통업	14,178	전기전자	-41,250
증권	9,516	서비스업	-9,844
화학	6,716	미분류	-9,797
삼성물산	18,052	SK하이닉스	-20,813
아모레퍼시픽	8,124	엔씨소프트	-12,431
POSCO	6,711	KBSTAR 200	-9,934
코스맥스	6,105	LG화학	-9,024
LG유플러스	5,939	삼성전자	-8,339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유통업	1,554	전기전자	-3,937
기타금융업	1,512	운수장비	-827
통신업	1,445	서비스업	-150
TIGER 200	50,473	KODEX 레버리지	-37,724
TIGER 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합성 H)	3,319	TIGER 헬스케어	-13,424
KINDEX S&P아시아TOP50	3,252	SK하이닉스	-4,183
TIGER 200선물레버리지	2,690	KODEX 200	-2,497
KODEX 은행	2,206	ARIRANG 단기우량채권	-2,242

보험			
순매수		순매도	
전기가스	2,161	기타금융업	-11,444
건설업	1,794	서비스업	-6,017
철강금속	1,678	전기전자	-3,948
KODEX 레버리지	22,263	TIGER 200	-7,096
삼성물산	8,277	KBSTAR 200	-7,039
삼성전자	4,866	SK하이닉스	-5,350
POSCO	3,687	LG화학	-4,765
아모레퍼시픽	2,217	메리츠금융지주	-4,01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유통업	53,543	전기전자	-88,258
화학	40,205	서비스업	-48,309
철강금속	31,945	은행	-9,939
삼성물산	50,254	SK하이닉스	-64,776
POSCO	32,925	삼성전기	-30,656
아모레퍼시픽	28,550	카카오	-29,996
한국전력	17,000	엔씨소프트	-20,970
코스맥스	14,300	LG화학	-16,851
롯데케미칼	11,558	유한양행	-8,889
미래에셋대우	11,280	금호석유	-7,974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0,593	LG디스플레이	-6,949
LG유플러스	9,956	효성	-6,562
대한유화	9,400	삼성SDI	-5,815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서비스업	25,550	의약품	-49,243
기계	24,791	전기전자	-30,077
유통업	21,438	건설업	-18,213
넷마블게임즈	41,342	삼성바이오로직스	-39,845
두산인프라코어	21,665	삼성전자	-37,497
LG전자	19,745	아모레퍼시픽	-31,274
롯데케미칼	18,959	NAVER	-15,614
LG생활건강	17,154	LG디스플레이	-14,425
현대모비스	13,353	카카오	-12,033
삼성SDI	12,289	한국전력	-11,160
LG화학	11,719	SK하이닉스	-10,467
삼성물산	9,499	현대건설	-8,111
삼성엔지니어링	8,371	LG유플러스	-7,80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오락,문화	2,574	도매	-15,940
기타서비스	282	제약	-6,541
인터넷	245	IT부품	-4,877
파라다이스	1,760	셀트리온헬스케어	-15,594
에스엠	1,421	셀트리온	-4,042
유니테스트	1,034	휴젤	-2,679
메디톡스	673	펄어비스	-1,908
진성티이씨	637	포스코켐텍	-1,392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3,596	제약	-7,469
방송서비스	2,953	반도체	-6,262
도매	2,935	IT부품	-2,648
셀트리온헬스케어	3,362	셀트리온	-5,727
에스에프에이	2,369	SK머티리얼즈	-2,139
서울반도체	2,368	휴젤	-2,065
CJ E&M	2,250	테라세미콘	-1,692
파라다이스	1,980	테스나	-1,508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432	금융	-314
오락,문화	255	제약	-185
금속	253	반도체	-134
펄어비스	432	휴젤	-325
파라다이스	270	에이티넘인베스트	-225
CJ E&M	153	포스코켐텍	-112
모두투어	125	진성티이씨	-96
원익머트리얼즈	113	제일홀딩스	-95

보험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2,265	제약	-10,065
오락,문화	1,568	IT부품	-1,696
도매	1,081	반도체	-1,612
CJ E&M	2,510	셀트리온	-4,845
파라다이스	1,593	휴젤	-2,940
셀트리온헬스케어	1,042	테라세미콘	-1,567
신라젠	1,038	제일홀딩스	-1,383
이오테크닉스	810	메디톡스	-1,18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오락,문화	7,797	제약	-58,776
방송서비스	6,354	도매	-51,905
디지털컨텐츠	2,734	반도체	-27,625
CJ E&M	6,647	셀트리온헬스케어	-51,336
파라다이스	6,516	셀트리온	-36,951
에스엠	2,188	휴젤	-12,289
에스에프에이	1,769	에코프로	-4,889
웹젠	1,710	테라세미콘	-4,679
서울반도체	1,184	주성엔지니어링	-3,691
컴투스	1,177	아모텍	-3,340
이오테크닉스	1,137	솔브레인	-3,061
유니테스트	1,021	원익IPS	-2,945
GS홈쇼핑	963	테스	-2,855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제약	53,042	화학	-7,827
반도체	4,128	디지털컨텐츠	-6,935
도매	4,061	기계,장비	-4,849
셀트리온	72,757	메디톡스	-17,316
셀트리온헬스케어	5,688	펄어비스	-4,553
테스	4,461	SKC코오롱PI	-4,383
CJ E&M	4,255	비에이치	-3,325
파라다이스	3,999	미래컴퍼니	-1,921
에코프로	3,636	신라젠	-1,897
서울반도체	3,238	더블유게임즈	-1,843
인터플렉스	2,536	GS홈쇼핑	-1,809
유진테크	2,244	코오롱생명과학	-1,744
동진쎄미켐	1,456	주성엔지니어링	-1,73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동양고속	41 일	한화	20 일
유화증권	37 일	KCC	19 일
SBS미디어홀딩스	30 일	하이트진로	18 일
KISCO홀딩스	25 일	현대에이치씨엔	15 일
S&T홀딩스	23 일	쿠쿠전자	13 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20 일	현대엘리베이	11 일
부국증권	20 일	삼양홀딩스	11 일
애경유화	18 일	이노션	10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티젠	27 일	동원개발	38 일
AP위성	24 일	씨엠에스에듀	18 일
투비소프트	24 일	신한제3호스팩	17 일
씨큐브	23 일	경동제약	15 일
삼진엘앤디	22 일	메가스터디교육	10 일
금강철강	20 일	네오팜	8 일
폭스브레인	19 일	하이록코리아	8 일
쎄노텍	16 일	대원산업	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49,188	삼성전자	340,232
삼성물산	116,944	현대중공업	267,452
LG이노텍	77,147	현대차	161,244
한미약품	44,861	LG전자	93,686
삼성바이오로직스	37,549	SK이노베이션	72,916
아모레퍼시픽	29,508	LG화학	67,659
NH투자증권	24,532	LG생활건강	58,616
LG전자	23,332	현대모비스	58,179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27,104	셀트리온	109,988
이오테크닉스	6,161	셀트리온헬스케어	22,429
에이티젠	5,734	포스코켐텍	19,456
GS홈쇼핑	5,353	CJ E&M	18,791
에스엠	4,832	서울반도체	14,335
펄어비스	4,793	비에이치	14,167
에스앤씨엔진그룹	4,464	인터플렉스	12,171
웹젠	4,340	테스	11,66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53,543	21,438	74,981
화학	40,205	14,798	55,003
운수장비	25,704	9,864	35,568
삼성물산	50,254	9,499	59,753
넷마블게임즈	1,977	41,342	43,320
POSCO	32,925	2,219	35,144
롯데케미칼	11,558	18,959	30,517
LG전자	7,899	19,745	27,644
LG생활건강	4,728	17,154	21,881
현대모비스	3,291	13,353	16,644
코스맥스	14,300	1,675	15,975
미래에셋대우	11,280	846	12,126
호텔신라	6,919	4,874	11,79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오락,문화	7,797	2,616	10,413
방송서비스	6,354	3,176	9,530
기타제조	18	82	101
CJ E&M	6,647	4,255	10,902
파라다이스	6,516	3,999	10,515
서울반도체	1,184	3,238	4,422
컴투스	1,177	947	2,124
웹젠	1,710	34	1,744
비아트론	49	973	1,022
인터로조	300	636	935
실리콘웍스	71	760	830
게임빌	638	123	762
에이티젠	408	303	71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상	23 일	진양화학	35 일
삼양홀딩스	23 일	KPX그린케미칼	30 일
현대에이치씨엔	17 일	방림	18 일
선도전기	16 일	현대비앤지스틸	14 일
KR모터스	16 일	미원화학	13 일
유진투자증권	15 일	GS글로벌	13 일
LG하우시스	14 일	계룡건설	12 일
부산가스	14 일	한솔케미칼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한양이엔지	19 일	레드캡투어	30 일
태웅	17 일	원일특강	25 일
케이피엠테크	11 일	뉴트리바이오텍	24 일
경동제약	11 일	모아텍	20 일
제일홀딩스	11 일	삼일	20 일
모아텍	10 일	코메론	18 일
유니테크노	9 일	동일금속	17 일
디에이테크놀로지	9 일	한일화학	17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88,132	LG디스플레이	-63,368
SK하이닉스	-211,673	아모레퍼시픽	-46,768
LG화학	-135,786	한국전력	-45,151
엔씨소프트	-119,602	삼성바이오로직스	-24,553
LG디스플레이	-80,406	LG이노텍	-22,985
삼성전기	-67,694	대한유화	-13,036
SK이노베이션	-51,474	NAVER	-11,630
KODEX 200선물인버스2X	-47,233	현대위아	-9,189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102,070	메디톡스	-29,793
셀트리온헬스케어	-81,942	더블유게임즈	-8,290
휴젤	-33,076	GS홈쇼핑	-7,563
메디톡스	-21,014	펄어비스	-6,557
제일홀딩스	-13,099	에스앤씨엔진그룹	-4,408
포스코켐텍	-8,910	메디포스트	-4,389
에코프로	-8,815	파트론	-4,317
앱클론	-8,644	바이로메드	-4,085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88,258	-30,077	-118,335
의약품	12,769	-49,243	-36,474
서비스업	-48,309	25,550	-22,760
SK하이닉스	-64,776	-10,467	-75,243
카카오	-29,996	-12,033	-42,029
엔씨소프트	-20,970	-940	-21,910
LG디스플레이	-6,949	-14,425	-21,374
유한양행	-8,889	-3,361	-12,250
우리은행	-4,189	-6,604	-10,793
효성	-6,562	-1,456	-8,018
한화테크윈	-2,518	-2,116	-4,634
현대글로비스	-2,805	-1,119	-3,924
현대위아	-3,008	-719	-3,72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도매	-51,905	4,061	-47,844
반도체	-27,625	4,128	-23,497
IT부품	-17,954	-3,523	-21,477
메디톡스	-2,156	-17,316	-19,471
주성엔지니어링	-3,691	-1,736	-5,427
비에이치	-2,021	-3,325	-5,346
펄어비스	-682	-4,553	-5,235
테라세미콘	-4,679	-12	-4,691
신라젠	-2,753	-1,897	-4,650
솔브레인	-3,061	-1,094	-4,155
원익IPS	-2,945	-565	-3,510
바이로메드	-1,637	-1,464	-3,101
엘앤에프	-2,786	-183	-2,96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166	25,928	셀트리온헬스케어	244	14,956
현대차	82	12,580	셀트리온	97	14,722
SK하이닉스	139	12,359	메디톡스	11	5,349
LG디스플레이	401	11,655	포스코켐텍	142	4,547
넷마블게임즈	73	10,896	파라다이스	214	3,448
엔씨소프트	25	10,800	신라젠	57	2,761
KB금융	182	10,592	셀트리온제약	77	2,190
POSCO	31	9,644	포스코 ICT	309	2,15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99	9,861,274	셀트리온	25,772	3,999,852
SK하이닉스	39,834	3,525,320	신라젠	7,248	343,920
삼성바이오로직스	3,756	1,417,704	바이로메드	2,472	299,338
LG디스플레이	48,544	1,393,203	파라다이스	16,219	260,323
카카오	7,635	1,217,790	로엔	2,547	239,452
KB금융	18,072	1,059,005	셀트리온헬스케어	3,635	225,020
현대차	6,717	1,051,246	코미팜	4,124	146,606
LG전자	11,889	1,045,048	SK머티리얼즈	666	117,30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KOSDAQ			
순 증		순 감		순 증		순 감	
보험업	10,992	운수장비	−3,062	종이,목재	1,172	반도체	−2,156
전기전자	2,998	건설업	−2,617	종합건설	855	의료,정밀기기	−1,814
음식료	1,378	증권	−2,554	전문기술	752	IT부품	−923
한화손해보험	6,824	삼성중공업	−3,444	국일제지	1,181	루트로닉	−1,132
한화생명	4,258	두산인프라코어	−3,364	KD건설	866	이화전기	−965
LG디스플레이	3,294	맥쿼리인프라	−2,079	포스코 ICT	791	유니크	−578
팬오션	2,406	흥아해운	−1,681	셀트리온헬스케어	640	톱텍	−438
금호타이어	1,368	대우건설	−1,409	하림	638	동진쎄미켐	−397
오리온홀딩스	1,223	LG유플러스	−1,157	브레인콘텐츠	469	덕산네오룩스	−372
두산중공업	1,217	하나금융지주	−1,040	우리기술투자	422	포스코켐텍	−371
KR모터스	1,043	삼성엔지니어링	−994	시노펙스	403	주성엔지니어링	−318
한국항공우주	807	SK증권	−970	알비케이이엠디	394	코리아나	−283
LG전자	799	메리츠종금증권	−948	바이넥스	344	크루셜텍	−22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외국인	6,925.1	1,726.5	1,757.5	30.8	817.7	700.7	244.0	-35.8
기관계	-4,614.9	-1,207.6	-1,138.9	59.3	-561.9	-533.9	-221.2	109.4
(투신)	-3,193.1	-210.6	-141.3	59.8	-35.1	-26.8	-45.1	-103.6
(연기금)	2,419.7	164.6	202.9	38.3	91.0	31.2	20.5	21.8
(은행)	-731.6	-21.3	-23.0	-1.7	-8.7	-15.0	-1.7	4.1
(보험)	-1,652.8	-70.7	-81.1	-10.3	-29.5	-9.0	-4.1	-28.1
개인	-5,934.4	-424.9	-581.5	-147.0	-310.4	53.8	-54.8	-113.5
기타	3,624.2	-94.0	-37.1	57.0	54.6	-220.5	31.9	39.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KOSPI	1,961.3	2,026.5	2,458.2	2,373.1	2,394.5	2,433.8	2,458.2	2,474.8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6,196.1	24,355.4	23,139.8	23,979.9	24,107.4	26,196.1
(증감액)	6,853.1	58.8	3,441.7	-132.5	-1,215.6	840.1	127.5	2,088.7
(회전율)	28.8	24.8	37.1	30.9	33.8	43.1	37.6	37.1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376.1	-300.4	-1,024.2	986.0	39.4	1,744.6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008.0	4,025.0	4,019.0	4,025.0	3,984.8	4,008.0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267.2	4,302.4	4,292.6	4,280.9	4,257.4	4,267.2
미수금	151.0	125.6	134.8	133.2	107.9	102.9	90.7	134.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27(수)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전체주식형	72,241	-3,780	-81	-109	494	316	-41	-40
(ex.ETF)		-5,023	40	30	33	88	3	37
국내주식형	54,464	-3,740	-44	-128	456	256	-53	9
(ex.ETF)		-5,050	-6	10	-4	29	-9	3
해외주식형	17,777	-40	-36	20	38	59	12	-49
(ex.ETF)		26	46	20	38	59	12	34
주식혼합형	9,080	1,042	18	20	13	18	4	14
채권혼합형	20,473	-5,870	12	-10	131	-40	-6	18
채권형	104,782	2,177	-247	34	-279	223	-241	-6
MMF	108,494	489	1,464	-614	-2,356	-2,839	-717	2,18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9(월)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한국	5,988	1,523	1,523	-	721	618	216	-32
대만	7,027	744	611	-	-	315	208	88
인도	5,115	-391	4	-67	-62	133	-	-
인도네시아	-1,174	-363	-84	-20	-34	-59	29	-
태국	492	212	153	21	70	48	15	-
남아공	-5,232	331	225	65	2	111	48	-
필리핀	1,023	-43	-16	-5	10	-25	5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6년말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회사채 (AA-)	2.14	2.43	2.48	2.47	2.44	2.46
회사채 (BBB-)	8.27	8.67	8.72	8.72	8.69	8.71
국고채 (3년)	1.64	1.89	1.94	1.93	1.90	1.92
국고채 (5년)	1.80	2.09	2.14	2.14	2.11	2.12
국고채 (10년)	2.08	2.38	2.42	2.42	2.39	2.39
미 국채 (10년)	2.56	2.36	2.36	2.35	2.32	-
일 국채 (10년)	0.06	0.06	0.06	0.07	0.07	-
원/달러	1,210.50	1,145.40	1,135.10	1,135.20	1,133.20	1,128.90
원/100엔	1,030.04	1,018.40	1,013.03	1,011.32	1,008.37	1,004.54
엔/달러	117.52	112.47	112.05	112.25	112.38	112.38
달러/유로	1.05	1.18	1.18	1.18	1.18	1.18
DDR3 1Gb (1333MHz)	1.15	1.24	1.24	1.24	1.24	-
DDR3 2Gb (1333MHz)	1.50	1.69	1.69	1.69	1.69	-
NAND Flash 16Gb (MLC)	1.87	2.98	2.98	2.96	2.95	-
CRB 지수	193.97	183.33	185.60	185.91	185.70	-
LME 지수	2,663.2	3,124.7	3,238.6	3,234.7	3,272.5	-
BDI	961	1,356	1,418	1,433	1,458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49.58	50.92	51.30	50.60	-
금 (달러/온스)	1,131.35	1,278.75	1,291.40	1,289.25	1,290.2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김성근(skkim@truefriend.com)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韓> 북한 노동당 창건일 日> 8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380, 2223, 2320)	美> **FOMC 회의록 공개** 10월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1%, n/a, -0.4%) 日> 8월 핵심기계수주 MoM (3.4%, 1.0%, 8.0%)	韓> 옵션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3, 250, 260) 9월 PPI MoM (0.4%, 0.4%, 0.2%) 日> 9월 PPI YoY (3.0%, 3.0%, 2.9%) 8월 3차 산업지수 MoM (-0.2%, 0.1%, 0.1%)	韓> 삼성전자 3Q 잠정실적 美> 9월 CPI MoM (n/a, 0.6%, 0.4%)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5.0, 95.1) 9월 소매판매 MoM (n/a, 1.6%, -0.2%)
16	17	18	19	20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中> 9월 CPI YoY (n/a, 1.6%, 1.8%) 9월 PPI YoY (n/a, 6.5%, 6.3%)	美> 9월 광공업생산 (n/a, 0.0%,-0.9%) 유럽> 9월 CPI YoY (n/a, n/a, 1.5%) 10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1.7)	韓> 9월 실업률 SA (n/a, n/a, 3.8%) 美> **베이지북 공개**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2.1%)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90, 1180) 中> 19차 당대회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243) 9월 선행지수 (n/a, 0.1%, 0.4%) 中> 3Q GDP YoY (n/a, 6.8%, 6.9%)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1%)	美> 연준 옐런 연설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32, 5.35) 유럽> EU 정상회담
23	24	25	26	27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유럽> 10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2)	美> 10월 마킷 제조업 PMI (n/a, n/a, 53.1) 유럽> 10월 마킷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8.1)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내구재 주문 (n/a, 0.3%, 2.0%) 9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50, 560)	韓> 3Q GDP YoY (n/a, n/a, 2.7%)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9월 도매재고 MoM (n/a, n/a, 0.9%)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4%) 9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5.0%)	美> 3Q GDP 연간화 QoQ (n/a, 2.0%, 3.1%)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9월 CPI YoY (n/a, n/a, 0.7%)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Memo

Memo

Memo